

# 도내 교원 98.5% “민주시민교육 필요”

## 목적·의미 이해도 높아

도내 교원들은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민주시민교육의 목적과 의미 등에 대한 이해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북도교육청은 도내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지난 3월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전북 교원의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설문에서 도내 교원들은 ‘학생들에게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한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98.5%가 ‘매우’(66.1%) 또는 ‘어느 정도’(32.4%) 필요하다고 답했다. 교원의 연령대, 직위, 학교급, 학교규모에 상관없이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

또 응답교원의 89.7%는 민주시민교육의 목적이나 의미에 대해 ‘충분히’(24.8%) 또는 ‘대충 말할 수 있을 만큼’(64.9%) 알고 있다고 밝혀,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이해도도 매우 높았다.

특히 교원의 85%가 현재 학생들에게 민주시민교육을 하고 있다고 응답(‘하는 편이다’(67.2%),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17.8%))했는데,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이해 수준이 높을수록 실시 정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민주시민교육에서 강조해야 할 영역에 대해서는 인식 차를 보였다. 민주시민교육의 중점 영역 1순위로 32.9%가 ‘인성 및 도덕성’을 꼽았고,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선택한 교원도 31.1%에 달했다. ‘타인에 대한 배려와 소통능력’을 선택한 교원은 18.0%였다.

또 응답교원의 89.7%는 민주시민교육의 목적이나 의미에 대해 ‘충분히’(24.8%) 또는 ‘대충 말할 수 있을 만큼’(64.9%) 알고 있다고 밝혀,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이해도도 매우 높았다.

특히 교원의 85%가 현재 학생들에게 민주시민교육을 하고 있다고 응답(‘하는 편이다’(67.2%),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17.8%))했는데,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이해 수준이 높을수록 실시 정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민주시민 육성이 학교교육의 중요한 목표라는 것을 대다수 교원들이 알지만, ‘민주시민의 자질이 무엇이나’에 대해서는 그동안 입시중심 성적경쟁, 관료적인 교육행정, 수직적인 학교문화, 중앙집권적 국민교육 등으로 인해 ‘주체적 시민’ 양성으로서 민주시민교육의 이해와 실천은 부족한 면이 있었다”면서 “촛불혁명 이후 다원화 사회를 기반으로 생활민주주의가 이상화되고

있는 현대시민사회를 살아갈 미래세대에게 민주시민교육은 시대적 요구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한편 도교육청은 민주시민교육 정착을 위해 민주시민교육과를 신설하고 T/F를 구성해 학교에서의 민주시민육성을 위한 정책을 새롭게 펼쳐가고 있다. 이번 조사도 정책 수립의 기본 전제로서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교원의 인식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설문조사에는 도내 유·초·중·고·특수학교 전체 교원 1만7,931명 중 27.3%인 4,892명이 응답했다.

도교육청은 교원들이 대규모로 참여하는 원탁토론회를 5월 초에 열어, 이번 설문조사에서 나온 여러 쟁점들을 충분히 토론했고 민주시민교육의 올바른 관점 형성과 기본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정은성 기자



전북대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숲체험교육 사업에 선정돼 일반인뿐 아니라 취약계층에게 다양한 형태의 숲체험 교육을 실시한다.

## ‘자연의 소중함, 숲체험으로 배워요’

### 전북대, 산림복지진흥원 숲체험교육 사업 선정

최근 산림복지 서비스로서의 숲 체험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지방 소도시 지역 청소년들은 이러한 산림복지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도 현실이다.

이러한 지역의 유아나 청소년, 소외 계층 자녀들에게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가 나섰다.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숲체험교육 사업에 선정돼 일반인뿐 아니라 취약계층에게 다양한 형태의 숲체험 교육을 실시하는 것. 전주 캠퍼스와 부안 지역 등에 있는 방대한 대학의 학술림을 숲 체험 교육 자원으로 활용한다.

전북대는 2004년부터 산주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산림문화교실 사업을 시작으로 2016년부터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숲체험교육 사업에 계속 선정돼 숲을 활용한 체험 교육을 실시해왔다.

북관기금 녹색자금이 지원하는 공익사업인 이번 교육은 취약계층 540명과 일반인 100명 등 연인원 700명을 대상으로 전북대 캠퍼스와 부안 학술림, 번산반도 국립공

원(내빈산), 채석강 등에서 열린다. 교육 프로그램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Welcome to 숲체험 느끼고 나누는 어울림’과 일반인 및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산림문화교실’로 구성된다.

이를 통해 예코 트레킹을 비롯해 숲해설을 결합한 숲체험, 자연물을 이용한 만들기 체험, 생태놀이 등이 다채롭게 진행된다.

취약계층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숲 교육은 5월 1일부터 총 6회로 나뉘어 진행되고, 일반인 대상 교육은 6월에 예정돼 있다. 교육비는 전액 무료다.

전북대 산림환경과학과 이상현 교수는 “교육 대상에 맞는 맞춤형 숲체험 교육을 통해 숲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시킬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이 교육을 통해 자연환경의 소중함과 숲 생태계 연결성을 깨달아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는 심성을 키워 공동체 의식, 상호협조 및 협력관계에 있음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 애로기술 해결로 산학연 협력 극대화

### 전북대 공학컨설팅센터, 맞춤형기술파트너지원사업 주관기관 선정

전북대학교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가 운영하는 공학컨설팅센터(센터장 윤순일 교수)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2019년 맞춤형기술파트너 지원사업 호남·제주권역 주관기관에 선정됐다.

전북대 공학컨설팅센터는 지난해 호남·제주권역 주관기관에 선정돼 지난 1년 동안 130개 기업의 애로기술을 도출했고, 최종 18개 과제가 선정돼

기업 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맞춤형 기술 파트너 지원을 수행하고 있다.

공학컨설팅센터는 이러한 기간의 중소기업과 기술 전문가 매칭을 통한 우수 과제 발굴과 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과제 발굴, 지원 과정의 우수성이 이번 선정에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센터는 2년 간 20억 원의 지원을 받아 대학에 있는 기술 전문가와 기업의 1대 1 매칭을 통해

기업의 애로기술 해결에 나선다. 특히 기술사업과 지원과 기업의 사업과 성공을 위한 추가 지원도 이뤄진다.

이와 함께 2019년 국가균형발전 사업과 전북 산업위기 대응을 위한 지원 전략과 중소벤처부의 OIN(Open Innovation Network)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의 애로기술 도출 및 우수한 R&D 사업이 발굴 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산학협력센터(센터장 송재호 교수)와 협력 네트워크 운영할 계획이다.

이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 시스템 (www.smtch.go.kr)을 통해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상반기 과제

신청·접수는 5월 2일까지다.

윤순일 센터장은 “맞춤형 사업을 통해 2018년에는 지역 내 18개 호남·제주권역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기술개발과 애로기술 컨설팅을 제공하는 성과를 올렸다”며 “2019년에는 대학의 기술전문가, 공용장비 및 기술이전 등 다양한 지원과 지적재산권, 수출시장 개척, 관련 논문 등 실질적인 성과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에는 전국 5개 권역 9개의 공학컨설팅센터가 설치되며, 전북대 공학컨설팅센터에는 호남·제주권역 중소기업 애로기술해결을 위한 정부 자금이 지원된다.

/정은성 기자

## 학부모 놀이활동가, 전래놀이 매력에 ‘퐁당’

### 도교육청, 오늘 전문가 강연 펼쳐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 학부모 놀이활동가 교육이 오늘과 24일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진행된다.

학부모 놀이활동가 ‘놀이밥퍼’ 교육은 놀이밥 60+ 프로젝트에 대한 학부모 이해를 높이고, 놀면서 배우는 아이들의 놀 권리 회복을 위한 학부모 자원활동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교육청은 학부모 놀이활동가 100여 명을 모집했으며 이 달 말까지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17일, 강한춘 전래놀이 전문가가 강사로 나서 ‘몸의 기억을 깨우다’라는 주제로 달팽이놀이, 안경놀이, 팔자놀이, 이랑타기, 망쭈기(사방치기) 등 실의 전래놀이를 소개한데 이어 오늘은 실내 전래놀이에 대해

강연을 펼친다. 또한 24일은 서병철 교감(사단법인 숲 움터학교)이 교육기부 자원활동으로 ‘소확행으로 가는 첫걸음’을 주제로 강의한다.

놀이활동가로 참여하고 있는 서은경 학부모는 “전래놀이가 무척 재미있다. 일상에서 실의 전래놀이를 접할 기회가 흔치 않은데 우리 아이들도 즐겁게 참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유소정 학부모는 “몸으로 부대끼고 서로를 응원하면서 유대감과 공감대를 키우게 됐다”며 “아이들이 전래놀이를 통해 사회성을 키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놀이 시간을 선물해주고 싶다”고 말했다.

놀이활동가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부모들은 ‘놀이밥퍼’ 교육을 통해 놀이의 중요성과 전래놀이의 즐거움을 새롭게 발견했다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도교육청 학부모 놀이활동가 교육이 오늘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진행된다.

전북도교육청 장유정 학부모지원전문가는 “놀이와 배움은 뿌리가 같다. 아이들은 놀면서 배우고 놀면서 성장한다”면서 “학부모 놀이활동가 프

그램을 통해 놀이의 중요성에 대한 학부모의 이해를 높이고, 아이들의 놀 권리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 도교육청, 장애인의 날 맞아 모범학생 교육감 표창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지난 20일, 제39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교육감 표창을 수여했다.

교육감 표창은 모범 장애학생을 발굴하고 표창함으로써 학생을 격려하고, 탁월한 공적이 있는 우수교원을 발굴하고 표창해 특수교육 담당 교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함이다.

올해 교육감 표창 수상자는 특수학교(유·초·중·고) 또는 통합학급에 재학 중인 모범 장애학생 38명과 장애 학생 교육에 공적이 있는 특수교사 10명 등 총 50명이며, 외부위원으로 위촉

된 표창 대상자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수상자는 학교생활에 적극적이고 본인의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며 다른 학생의 모범이 되는 장애 학생과 장애학생 교육에 공헌한 우수교원을 대상으로 하며 시상식은 수상자의 소속 학교에서 진행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적극적인 태도로 모범을 보여준 학생과 묵묵히 특수교육에 헌신해 온 교원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